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주지성’

(周知性)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은 개별 부정경쟁행위에 관해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그 성립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공통으로 등장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이 있다. 이는 이른바 ‘주지성(周知性)’ 요건으로 설명되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목 및 나목), 저명상표 희석행위(다목), 도메인이름 사용행위(아목), 타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행위(타목)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에서 ‘국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널리 인식된’은 불확정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서 어느 정도로 알려져야 이를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우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목, 나목)와 관련해 법원은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돼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명상표 희석행위(다목)와 관련해서는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표지 등의 사용기간, 방법, 사용의 모습이나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 해당 상품표지 등이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품표지 등의 등장시기, 국내 판매처의 개수 및 연간 판매 수량(또는 매출액 규모),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여부 및 홍보매체, 수상실적, 시장점유율,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상품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

한편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쟁사회에서는 상품표지 등의 인지도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내에서 누구나 알고 있던 상품이 내년에는 금방 잊혀진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형벌 조항)의 적용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침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은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나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쪽이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문제 되는 위 ‘주지성’ 요건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바른

홈쇼핑, 유료방송 송출 중단까지 가선 안돼



기 지 수첩
채 윤 정 (산업부)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에 대한 갈등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재에도 양자 간 해결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결국 ‘대가검증 협의체’가 열리게 됐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빠르면 이번 주에 개최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및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돌입하게 된다.

NS홈쇼핑이 이미 지난주에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며, 2번째 대상자는 롯데홈쇼핑이다. 롯데홈쇼핑이 가장 먼저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 송출 중단 방침을 밝혔는데,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V에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대가검증협의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또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LG헬로비전에 재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하며 각각 9월 말부터, 10월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후 개최되는 대가검증협의회는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사들은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방송 중단을 진행하기로 해, 케이블TV 이용자들은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로잡지 못 하면 이들 홈쇼핑 채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LG헬로비전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이다 보니 2개의 홈쇼핑사가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혀 LG헬로비전은 매우 당황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방송 송출 중단이 GS홈쇼핑 등으

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케이블TV 가입자는 368만 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딜라이브도 200만 이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570만 가구에서 이들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100원을 팔면 60원 이상을 송출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출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방송 중단까지는 가지 않고 케이블TV 사업자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임했던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양 사업자의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홈쇼핑 채널이 중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ch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4일 (음 7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48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대인관계에서 적이 없는 법. 60년생 새로운 이상의 유혹이 있으니 중심을 잘 잡자. 72년생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84년생 건강을 위해 가벼운 등산을 시작.
- 소** 37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49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 61년생 투자나 매매는 불리하니 다음 기회에. 73년생 몸 건강도 챙겨야지만 마음 건강이 더 중요. 85년생 명예가 손상될 수 있으니 말조심.
- 호랑이** 38년생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50년생 불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물이 필요한 것. 62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 법. 74년생 우는 아이는 굶지 않은 법이니 늘 조연을 구하라. 86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 토끼** 39년생 고집을 부리면 일하고도 고맙단 소리 못 듣는다. 51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으면 좋겠다. 63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여 일 처리할 때. 75년생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87년생 내 고가 석자이니 보충제지 말라.
- 염** 40년생 행운이 바로 앞에 있다. 52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발걸음 가니 봐 주는 사람이 없다. 64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후회가 막급이다. 76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내가 인정받으니 마음을 굳게. 88년생 가족을 잘 챙겨야 화목하다.
- 뱀** 4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53년생 주변에서 뜻밖의 행운이 있다. 65년생 집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7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9년생 실력이 있으니 하는 일이 발전.
- 말** 42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54년생 산뜻한 출발이 좋은 결과를 맺는다. 66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78년생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간다. 90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 양** 43년생 어제는 내 사람 오늘은 모르는 타인. 55년생 직장의 변동 수가 있으니 마음을 다잡을 때. 67년생 치과 진료가 있을 수도 있겠다. 79년생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우선 시작하라. 91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려라했으니.
- 원숭이** 44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5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 68년생 사람과의 관계는 예의가 중요하다. 80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할 때. 92년생 배우자와 불화가 있으면 대화로 풀라.
- 닭** 45년생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57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6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81년생 우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3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 개** 46년생 지금은 힘들어도 내 미래를 보고 노력해야 하는 날. 58년생 주변 뜻에 따르면 길 한발. 70년생 오늘은 무슨 일든 시작. 82년생 도와주고 있는 상대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94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기분도 상쾌.
- 돼지** 4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59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오늘 깨닫는다. 71년생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니 안부 전화 드려라. 83년생 문서의 교섭이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95년생 인생사는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김상회의四季 사주를 믿지 마세요 ①

“사주를 믿지 말라니요!” 사주명령을 입에 달고 사는 필자가 말하니 의아해할 만도 했을 것이다. 사연인즉슨, 필자의 글에서 ‘사주학 풀이’는 일반적인 사주학의 원리를 대중적인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쓰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 하는 말이 언젠가 양인살의 속성을 풀이한 것을 봤는데 자신의 사주 구성과 비슷해서 불안함이 엄습해왔다는 것이다. 열거된 일주 중에 자신은 정미일 주인데 천간과 지지에서도 비겁이 있고 하니 딱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같으며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양인이 건곤격이면 쌍칼’이라 한다는 대목에서 칼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는데 쌍칼이라는 대목에서 자신은 돈이 좀 모일라 쳐도 반드시 새어나갈 일이 생기고 아버지는 자신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 자신에게 편재가 되는 아버지 마누라 돈이 다 박살난다는 대목의 글에서처럼 평소의 삶이 그랬기에 몹시 우울해했다. 게다가 평소 자신의 사주가 건조하다는 말을 늘 들었는데 필히 교통사고로 불구 운까지 언급된 것을 보고는 자신의 미래 역시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여 근심이 더해진 것이다.

상담자의 말대로 사주구성을 살펴보니 월지에 비견(나의 일지와 같은 오행)이 들었고 일주의 정(丁)이 지지의 미(未)를 화생토 하니 몸도 건조함이 분명하다. 조심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주의 해석과 통변은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의 작용을 봐야 하며 일주나 지지의 합과 충만으로 보게 되면 단편적이 된다. 글에서는 일종의 원칙론으로서 각각의 요소적 설명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소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각각은 그냥 하나의 요소이기에 어떤 변수의 힘에 의해 그제서야 작용이 시작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1	8	5	3	7	6
6			1	9		2
3		2	6	7	5	8
8	6	5			2	9
1	7	9			4	5
7		3	4	1	9	5
5			2	8		7
	2	6	3	5	1	8

			6	1		
	8	2	5		7	9
	1			8		2
8	9					6
		4			2	
2	6					9
	4			7		1
	2	1	4		9	3
			8		3	

정답

4	8	1	9	2	8	9	2	6
2	8	9	8	6	2	1	7	9
9	2	6	1	9	7	8	8	2
9	9	7	2	8	8	6	2	1
1	2	8	9	9	6	7	8	2
8	6	2	7	1	2	9	9	8
8	1	9	2	7	9	2	6	8
2	7	8	6	8	1	2	9	9
6	9	2	8	2	9	8	1	7

간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